

# 성장하는 경제규모 속에서 '참된 자신' 찾아야

## 자기중심적인 아집은 '고(苦)'와 '분쟁'의 원인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goods)가 생산돼(공급) 구매(수요)와 그것들이 되팔이(순환)되고 혹은 그 규모가 늘어나는(성장) 구조에 대해 많은 연구를 축적해나가면서 관련된 법칙을 찾아내는 데에 주력했다. 그 때문에 선진국들은 역사상 미증유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려왔고 그러한 사회에서는 안정과 진보가 양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경제성장을 무한히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국민들은 물질적 부(富)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제발전의 이면을 보자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무모한 자원의 낭비로 이어져 지구환경의 자연적 순환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북돋우어, 죽을 때까지 끝없는 탐욕 즉, 돈(money)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사람들은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행복하기는커녕, 정신은 점점 불안해지고 생활은 오히려 불행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가 물질적인 탐욕 일변도의 경주마가 되는 방법만 가르치고, 의사가 병자에 대한 헌신을 벗어나 진료수가의 제리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이란 관념은 직업적 사명 속에서 진실된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아말로 경제생활의 양면성인 것이다.

이와 같이 '돈 = 경제'에만 삶의 목표가 전부인 양 매진해인 성을 놓쳐버린 그런 경향에 문제의식을 던진 사람으로 독일의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인 E. F. 슈마허가 있다. 슈마허는 1973년 <Small is Beautiful>라는 책을 펴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저서를 발간

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금세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서로 출간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 반응은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첫째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선진문명권에서는 경제규모가 지나치게 성장해 본래 경제를 리드해야 할 철학 내지 세계관이 살아 있을 때에 사람들은 마음이 풍요로운 '전인(全人)'이 될 수 있으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혼미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사람들은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이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슈마허는 전인적 가치의 핵심으로서의 '불교 사상의 경제학'을 강조하면서 '불교적 문명'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불교적 문명권의 핵심이란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하는 본능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집(我執; ego의 마음)'이라 부른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죄'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그 자기중심적(이기적)인 '아집'이아말로 삶의 '고(苦)'와 '분

쟁(trouble)'의 원인이 된다. 그 '아집'으로부터 해방된 경지를 '열반(涅槃)'이라고 하여 불교사상의 요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오직 부처만이 곧 참'이라는 것, '부처'아말로 삶의 이상적 경지, 즉 '니르바나'이며 불교적 실천행(行)의 목표인 것이다.

인간의 '아집'은 대뇌가 발달해 말을 하게 되고

과 구별한 때부터 '아집'이 발동된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개체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때, 이 '나'라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핵심이 된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는 물체 즉 모든 생물은 공존하고 있다. 결국 '나'를 포함한 인간은 그 전체적인 생명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태양과 공기 그리고 물이 그 존재하는 곳에 인간의 삶의 근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에 집승이다' '먹을거리다' 하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 그 집승을 뒤쫓아 가서 붙잡아 그 살코기를 먹거리로 삼는데서 인간은 '나'의 힘으로 먹거리를 손에 넣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이 원시 수렵경제로 결국 '경제'의 시작인 것이다.

수렵민족인 기독교도와 농경민족인 불교도에서는 '나'의 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있다. 수렵민족은 자기가 잡고 싶은 짐승은 스스로 포획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목적은 자기 힘으로 벌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욕망을 추구하고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생활방식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농경민족은 어떻게든 우주 자연의 힘이며 천지의 혜택을 생활 속에서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다. 벼나 보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자연의 힘, 천지의 혜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경민족은 '나'라고 칭하는 자기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잘 알게 된다. 뜻한 바대로 하고 싶어도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농경민족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에서 '뜻하는 바대로 안 된다'는 것이 '고(苦)'라는 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농경민족의 종교인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말씀한 것은 그러한 의미이다. 그렇다면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뜻하는 대로 무한히 하고픈 마음(탐욕)'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뜻하는 대로 하고픈 마음' 즉 욕망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이든 '열반'이라는 불교의 이상적 경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에는 실로 명쾌하고 간단하지만, 실행으로 옮기기에선 결코 쉽지 않다. '나'라는 것에 사로잡히는 인간의 '아집'은 깊고,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고야 만다는 집착과 탐욕, 망상이 마음의 저변에 있는 '아집(이기심)'을 끊임없이 북돋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경제생활'의 문제인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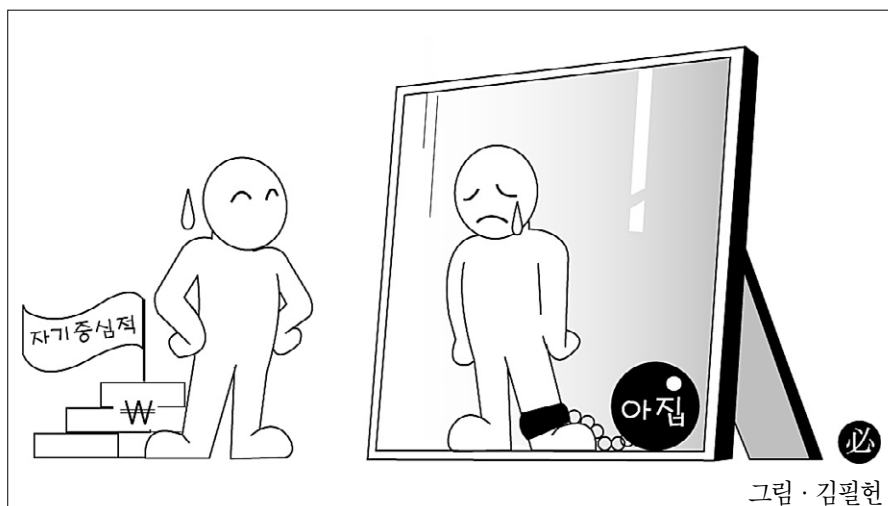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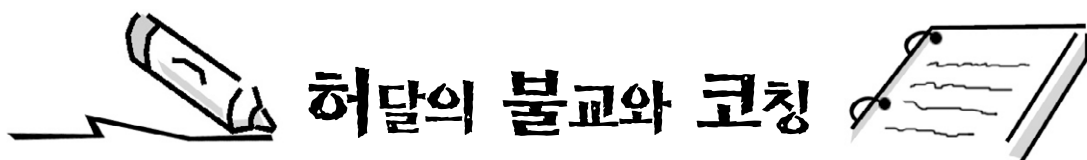
여러 가지 재화(물건)를 가지게 된 때부터 시작된다. <성서>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지혜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의 몸이 아닌 또 하나의 다른 몸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육체와 비교해 보았다. 자신의 것을 '나'라고 이름 붙이고, '내가 아닌 것'

### ② 리더십의 원천

남편이 열을 올리러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재미 없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군대 가서 죽구 한 이야기"라고 한다. 열 올리러 침 튀겨 가며 하는 이야기지만, 정작 공감적 체감이 없는 아내들에게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지루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선착순' '앉아 번호' '동작 봐라!' 등의 구호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웠던 남편들에게 리더십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응당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천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을 것이다.

리더십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구성원(Follower)의 성과도 의당 이와 같은 법칙을 따른다. 피난국민학교 시절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 다녔던 서당에서, 회초리 맞아 가며 뜻도 모르고 외우던 <천자문>. 그 별칭인 <백수문(白首文)>의 유래를 예로 들어보자.

중국 양(梁)나라 임금인 당시 천재로 명성이 자자하던 주홍사(周興嗣)를 잡아들여 가두고는 명했다. "오늘 밤 안으로 일천 글자[千字]를 사용해 사언시(四言詩)를 짓되 단 한 자(字)라도 중복이 있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불후(不朽)의 명문(名文)인 천자문 250수(首)는 그런 강압적 환경 아래 써졌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그 허탈함 사이에 젊은 주홍사의 머리가 호호



백발이 돼버렸다 해 백수문(白首文)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

폭력에 뿌리를 둔 리더십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예라 하겠다. 여의도에 출퇴근하던 직장 시절, 늘 주변이 복잡하고 시끄러웠는데 사무실 이 국회, 정당 사무실 부근에 위치했던 까닭이었다. 이 다양한

### 존중의 리더십은 '신뢰와 신뢰성' 갖춰야

고 분주한, 때로는 투쟁적인 목소리들을 모으고, 이끄는 리더십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이념, 국가관, 정의, 애국심 등이 주축이 되는 동기가 아니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표피를 한꺼풀만 벗기고 보아도 거기에는 치밀한 이해관계의 그물이 보였던 것이 기억난다. 이러한 리더십 네트워크 구조가 꼭 정치가, 정상배(政商)들의 전유물만도 아니었던 것이 '김밥 팔기' [손 비비어 아

침하는 모양을 흉내낸 밑에 손금이 다 없어져버렸다는 말이 유행하던 곳이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목숨 걸던 직장이었기 때문이다.

폭력과 이해관계를 리더십의 원천으로 보는 하나의 분명한 시각이다.

이처럼 일차원적 힘수관계를 가지고 폭력이 작용하면 리더십이 생겨난다거나,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리더십이 소멸한다거나 하는 즉물적 현상과는 차원을 달리해 오래가는 리더십이 또 하나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른바 신뢰와 존중의 리더십이라 부르는 것인데, 그 원천이 되는 키워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신뢰와 신뢰성(Trustworthiness)이다. 신뢰의 리더십이란 신뢰성을 스스로 갖춘 사람에게서만 생겨

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뢰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갖춰지는 것일까? 리더십 교과서에서는 '좋은 상품'과 '탁월한 역량'을 동시에 갖춘 때 신뢰성이 형성된다고 해, 필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본 일이 있었다. 더 풀어서 좋은 상품으로는 성실성(Integrity), 성숙성(Maturity), 풍요의 심리(Abundance Mentality)를 들기도 하고, 탁월한 역량으로서 기술(또는 기능)적 능력, 개념화 능력, 창의력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현실의 장(場)에서는 원천이 다른 리더십의 여러 형태가 섞여 작용해 리더와 구성원의 자기기만과 영기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좋은 코치의 역할은 영인 실타래를 잘 풀어 고객 스스로 신뢰성을 갖춰 나가도록 도와 주는 일이다.

영어로는 신뢰를 'Trust'라는 단어로 표현하나, 순수한 우리말로로는 '믿음'이 좋은 말이다. 예컨대 기독교에서는 'Trust [in God]' 'Belief' 또는 'Faith'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강조하나, 불교에서는 오직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유래하는 '확신', 'Confidence'와 'Conviction'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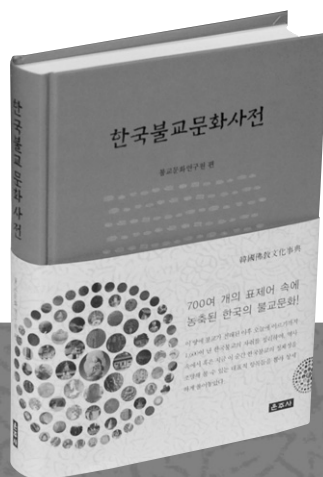
손 안에 흰 보석의 비유를 사용하여, 주먹을 쥔 채 그 있음을 믿으라 하느냐, 손을 펴서 보석을 보여 주어 그 있음을 알게 하느냐의 차이를 밝힌 옛 팔리(Pali) 경전의 인용구가 불자 리더십의 원천과 접목돼 문득 생각난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 알쏭달쏭 불교문화가 한 손에!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조망해 볼 수 있는 700여개의 표제어

###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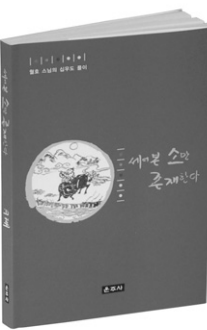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

## 한국불교문화사전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편집 (02) 926-8361, 영인 (02) 3672-7181, 북다북 www.buddhabook.co.kr

### 본마음 참나의 불성 자리를 찾아서

월호 스님의 십우도 풀이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국판/컬러/208쪽/9,000원

참선의 단계를 명쾌하고 알기 쉽게 풀이한 참선과 행불수행의 길잡이!

나는 지금 수행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가? 등등, 마음공부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고 수행에 더욱 정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십우도는 참선수행의 드넓은 바다에서 현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 다양한 수행법을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풀이

## 수행문답



현장에서 수행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기본 개념, 수행의 방식, 각 수행법의 요점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범보신론사 역음/신국판/424쪽/17,000원